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김성주(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은 1960년대 초 북·소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1962년부터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을 천명하고,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는 등 군사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북·중 관계 악화 등 안보 위협이 심화된 1966년에는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및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또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증대와 군사력 강화는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 완수 의지와 맞물려 1968년 전후 1·21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공세적·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군사주의의 확산은 경제발전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군사력 건설이 국가 정책에서 특별한 우선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정책화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공업 우선 발전론’과 ‘군중동원을 통한 속도전식 경제성장’, 한반도 혁명 완수를 위한 ‘전민 무장화’에 따라 군사주의에 물들어져 갔다.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김일성의 혁명 완수 의지가 결합하며 사회 전 부문에 군사주의적 정향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기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제4장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군사주의,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군사모험주의

1. 서론

오늘날 전 사회의 군사화 현상은 북한 체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또는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군사에 대한 중시’는 체제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군사중시노선을 체제의 독특한 현상으로 부각하며 북한을 ‘군사국가’로 또는 ‘병영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 체제의 군사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북한이 상시적인 군사국가가 아니었으며,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적도 없었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체제의 군사중시 특성을 군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클레어(Michael T. Klare)는 ‘군사주의(militarism)’를 “한 국가의 군사기구(military apparatus)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문화, 교육, 미디어, 정치, 경제 등 전반 분야에서 군사적 목표(전쟁 준비, 무기체계의 획득, 군수산업의 발전)와 군사적 가치(권위의 중앙 집중, 계층화, 훈육과 일체화, 호전성 및 이민족 혐오)가 우세해지는 경향”으로 정의한다.¹⁾ 이 정의처럼 군사주의적 관점은 정치권력적 논의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회 전반에 군사적

1) Michael T. Klare, “Militarism: The Issues Today,” Asbjørn Eide and Marek Thee(eds.),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New York: ST. Martin’s Press, 1980), p.36.

가치와 정책이 우세해지는가에 논의의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군사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연구는 기존 정치권력 중심 접근에 비하여 북한의 군사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즉, 특정 시기에 북한 체제가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원인과 확산 과정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군사주의가 팽배한 시기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기, 1960년대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추진기, 그리고 1990년대 선군정치기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 확립과 대외 안보위협 인식의 증가, 한반도 공산혁명 완수라는 요인들에 의해 군사적 목표와 가치가 전 사회에 팽창된 1960년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1960년대에 북한에서는 군부 인사의 정치 참여,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제기, 사회의 군사화 등 체제 전반에 군사주의가 형성되고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북한의 대외 정세 변화를 군사주의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군사주의 확산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주의가 가지는 정치적·경제적 성격과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북한이 제기한 선군정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성격과 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1960년대 북한의 대외 정세와 안보 인식

1) 중소 분쟁과 북방3각관계의 균열

북한은 196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공업국 건설을 내세우며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곧바로 국제적인 안보위기에 맞닥뜨렸다. 그 위기의 핵심은 중소 분쟁에서 비롯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균열과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의 발생이었다.

중소 분쟁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가 탈(脫)스탈린주의를 천명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세계와의 평화공존과 전쟁가피론,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의 다양성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흐루시초프의 노선을 ‘수정주의’로 강력히 비판했고, 소련공산당은 마오쩌둥(Mao Tsetung, 毛澤東)의 입장을 ‘교조주의’로 비판했다.²⁾ 중소 갈등의 초기 단계에 북한은 ‘평화공존론’ 거부, ‘미 제국주의자와의 투쟁’ 등 중국의 교조주의적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중국 지지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제한적인 지지’로 변하였으며, 당시 북한의 전반적인 입장은 중소 분쟁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었다.³⁾

그런데 1961년 5월 남한에서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

2)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과주: 한울, 2010), 569쪽.

3) Paul F. Langer,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dam Bromke and Teresa Rakowska-Harmstone(eds.), *The Communist States in Disarray 1965~1971*(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2), p.258.

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일성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여 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⁴⁾ 그러나 북·소, 북·중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한 북방3각동맹은 강한 결합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양대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이 갈등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 와중에서 북·소 관계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은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탈스탈린주의 강조, 당 강령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구의 삭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당 지도부 교체 규칙 삽입 등을 결정하였고,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추구하던 북한은 이에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⁵⁾

이후 1962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북·소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먼저 1962년 10월에 소련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한 데 대해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 쿠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이 쿠비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소련의 태도를 ‘투항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 대규모 반미시위를 조직하는 등 미·소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⁶⁾ 북한은 당시 보여준 소련의 태도

4) Ibid., p.258. 미국 중심의 남방3각동맹 체제에 대응한 북방3각동맹 체제의 구축은 1950년대 후반 또는 196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의 발생은 북·소, 북·중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61년 6월 29일~7월 10일 당·정부 대표단을 인솔하고 소련을 방문해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바로 뒤이어 7월 10~15일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5)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42~249쪽.

에 대해 “현대수정주의자들의 호언장담이 허황한 것이며 나라방위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⁷⁾

이어 1962년 10~11월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재발하였다. 당시 소련은 실질적으로 인도 편에 섰으나, 북한은 즉각 중국을 지지했다. 북한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에 대해 미국이 인도를 부추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소련에 대해 전쟁 공포증에 걸려 제국주의와 타협·투항한 것으로 비판하였다.⁸⁾ 이후 1962년 가을부터 1964년 10월까지 거의 2년간, 북한과 소련 간에는 단 한 차례의 정부 대표단 방문도 없었고, 반대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수많은 정부 대표단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⁹⁾

이러한 북한과 소련의 갈등은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계기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반대로 1965년 무렵에는 북·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1964년 11월에는 북한 내각 부수상 김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10월혁명 47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소련을 방문했고, 이어 1965년 2월에 코시긴(Alexei Kosygin) 소련 내각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¹⁰⁾ 북·

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77쪽.

7) 고정웅·리준항,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6쪽.

8)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 온 나라를 요새로 만들자,” 『로동신문』, 1962년 12월 17일.

9)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572쪽.

10)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자주노선에 대해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정진위, 『북방3각관계: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법문사, 1985), 128~129쪽.

소 관계 개선과 함께 소련은 1965년 5월 북한에 대규모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그중 무기 원조가 1억 5,000만 루블에 달했다. 김일성은 이를 북한의 급속한 군비 증강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높게 평가했다.¹¹⁾

반면, 1965년경부터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의견 차이와 중국에서 문화혁명 발생과 함께 중국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 중국의 문화혁명 지도부와 홍위병들은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로 몰아붙였고 북한과 중국은 갈등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¹²⁾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살찐 수정주의자’, ‘호루시초프의 제자’라고 비난하는 대자보를 거리에 써 붙였고,¹³⁾ 북한에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허위선전을 유포하였다. 이에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해명 및 반박 기사를 보도하였으며,¹⁴⁾ 북한과 중국은 폭력적 마찰까지 발생하며 군사적 갈등 위기까지 발전하였다.¹⁵⁾

11) 미찌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과주: 한울아카데미, 2014), 86쪽.

1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242~243쪽.

13) 1967년 2월 중국의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살찐 수정주의자’, ‘호루시초프의 제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대자보를 베이징 거리에 써 붙였다. 이 해 8월에는 김일성 정부가 인민들의 고향을 짜내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패로 북한 경제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7), 798~799쪽.

14) 『노동신문』, 1967년 1월 27일.

15) 1967년 봄에 중국은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에 군대를 배치하고 백두산 지역의 경계 설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1967년 가을에는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홍위병들과 조선족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더욱 험악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22 April 1967. Memorandum on a Conversation with Comrade Titorenko, Officer in the Soviet Embassy, on 12 April 1967. PolA AA, MfAA, C 149/75;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20 October 1967. Memorandum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People's

북·중 간의 이러한 극한 갈등은 1969년에 들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한다. 1969년 9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969년 10월 1일에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하였다.¹⁶⁾ 김일성은 1969년 10월 중순 평양을 방문한 몽골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남한에서 100만 명의 군인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등 뒤에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언급하였다.¹⁷⁾

이처럼 1960년대 북한의 대외 정세는 중소 분쟁과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Republic of Poland, Comrade Pudish, on 9 October 1967. PolA AA, MfAA, C 149/75. 이하 헝가리, 동독 등 외교문서는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ashington, D.C. October 2004), 또는 Balá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에서 재인용함.

16)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p.29.

17) Embassy of the GDR in the PRC. 30 October 1969. Memorandum on a Club Meeting of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the GDR, Soviet Union, Czechoslovakia, Hungary, Poland, Mongolia, and Bulgaria on 24 October 1969 in the Embassy of the USSR. PolA AA, MfAA, C 1366/74.

2) 대외 안보위협 인식의 증가와 공산화 통일 추구

1960년대 북한은 남한의 5·16 군사정변 발생부터 시작해 1962년 쿠바사태, 그리고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의 확산 및 한·미·일 남방3각동맹의 강화에 따라 대외 안보위협 인식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당시 김일성이 행한 공식 연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미 일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그것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끌어 들여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¹⁸⁾하고 있다고 당시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보여준 소련의 대응은 북한 지도부에게 소련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만들었다. 1962년 11월 초 북한 외교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스탈린은 제국주의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은’ 반면, ‘호루시초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겁쟁이’로 표현하였다.¹⁹⁾ 또한, 소련이 쿠바에 있는 자국 미사일 철수 대가로 터키 내 미군 기지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쿠바 인근 관타나모 미군 기지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는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북한 지도부가 ‘소련이 작

1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근로자』, 제18호 (1962), 28~29쪽.

19) Hungarian Foreign Ministry, Memorandum, November 1962, KTS, 5. doboz, 5/bc, 0085/RT/1962.

은 나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²⁰⁾

또한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졌다. 1961년 출범한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는 이전의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대응전략'으로 세계전략을 개편하면서, 소련과는 핵무기 경쟁에 치중하고 현실적인 군사행위는 국지전쟁과 대(對)계릴라 전쟁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유연대응전략은 1950년대 중반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에 따라 기존의 대량보복전략을 포기하면서 등장한 정책이었다.²¹⁾ 그러나 북한은 케네디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에 대해 “《전면 핵 전쟁》을 전략을 계속 견지하는 한편, 상용무기를 위주로 하는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계릴라 전쟁)을 중요시 하”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국부 전쟁》은 “제한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하여 정규군을 동원하는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월남과 쿠바 문제,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군사협력 강화도 케네디 행정부의 《신 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다.²²⁾

북한의 이러한 안보 불안감은 한·미·일 간의 안보체제가 확립되자 더욱 고조되었다. 1960년 1월 19일 미·일 상호안보조약이 체결되고, 1963년 2월에는 미국의 의리로 일본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관한 극비 '미쓰야(三矢)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65년 6월에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협정이 체결되

20) Balá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p.192.

21) 전재성, “세계적 차원에서 데탕트의 기원과 전개,”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10쪽.

22) 강효진,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 『근로자』, 제20호(1962), 39~41쪽.

었다.²³⁾ 북한은 북방3각관계가 중소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남방3각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은 1966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13주년 기념식에서 “그들은(일본은) 우리나라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을 무력 침공하기 위한 ‘세계화살(미쓰야)작전’ 계획과 ‘날아가는 용(비룡)작전’ 계획까지 작성하여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²⁴⁾고 주장했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의 안보위협이 아시아 및 북한으로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전(全) 사회주의 국가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고양함으로써 미국의 사회주의 공격 전선을 분산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김일성은 당시 분열에 처했던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하였다.²⁵⁾ 또한 김일성은 반제국주의 투쟁과 함께 한반도 혁명의 완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은 평화적 또는 무력적 방식으로 변하였지만 ‘현세대에서의 한반도 혁명완수’ 의지는 1960년대에 시종 일관 지속되었다. 즉, 김일

23) 1961년 6월 열린 케네디·이케다 회담에서 케네디는 “안보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공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교섭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던 제6차 한일회담이 1961년 10월 20일 재개됐다. 한편 북한은 1960년 10월 25일 제5차 한일회담에 대해 ‘동북아세아동맹 조작 기도’로 규정하였고, 이때부터 한일회담을 대북 압박 내지 포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곽승지, “안보전략,” 『북한의 국가전략』(과주: 한울, 2003), 102쪽.

24) “인민군창건 1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최광 총참모장 보고(1966년 2월 8일),” 『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238쪽.

25)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81~382쪽.

성은 강력한 반제국주의 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완화하고, 동시에 한반도 혁명 완수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외 정세의 변화와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의지가 결합하여 1960년대에 강력한 군사주의가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방에서의 자위’와 군대의 정치 참여

1) 만주파의 군권 장악과 군부의 정치 참여 확대

북한은 1958년 초부터 군대 내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고 인민군 내에 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대 내 종파세력의 청산을 통해 북한군은 다른 누구의 군대도 아닌 ‘노동당의 군대’로 규정되었고, 군권의 핵심에는 김일성과 만주파가 자리 잡았다. 특히 1958년 3월 인민군내 당위원회의 설치에 군대의 개별 간부가 김일성의 지도력에 반대할 만큼 영향력을 갖는 것을 차단하고, 군대가 당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²⁶⁾

이후 북한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1960년 9월에 김일성은 군대 내 당위원회가 군대 내 최고 조직이며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니라 ‘집체적인 군사정치적 영도기관’이라고 규정했다.²⁷⁾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은

26)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60쪽.

27)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50~354쪽.

조선로동당의 무장력'임을 당규약에 최초로 명시하였다.

이어 1962년 12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쿠바 사태 등 안보위협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구체화하였다. 노동당 내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당의 새로운 노선인 국방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⁸⁾ 군대 내 당위원회의 도입과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군대에는 당조직이 당에는 군사기구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써 북한군은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당의 군대임이 확인됐다.²⁹⁾

이와 함께, 당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의 설치에 만주파 군인들이 당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당과 군이 일체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을 비롯하여 최용건, 김광협, 김창봉, 최현, 석산, 리영호 등 전원이 만주파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정치위원이나 중앙위원 또는 국가직책들을 겸직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도 군부 인사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11인 가운데 최용건을 제외하면 군부 인사는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김광협 1명이었으나,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15인의 정치위원 가운데 군부 인사는 김광협, 김창봉, 최현, 리영호 등 4명이었으며, 후보위원에도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이 진출하였다.³⁰⁾

28)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세종연구소, 2011), 23쪽.

29)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62쪽.

30)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당시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창만, 정일영, 남일, 이종옥, 박정애, 이주연 등 6명의 정치위원과 하양천, 한상두, 현무광 등 3인의 후보위원이 탈락하였다. 탈락한 6명의 정치위원은 모두 경제 분야의 중요 보직을 수행하던 인물들이었으며, 7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966년 말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본격적인 추진기를 맞아 노동당 지도부에는 온건적인 경제관료들이 물러나고 만주파 핵심 군 간부들이 포진하게 되었다.³¹⁾

2) 군부 관료주의자의 부상과 ‘군사 모험주의’의 추구

1960년대 군부 인사들의 영향력 증대 속에서 군사노선의 정책적 집행을 주도한 군부 핵심 인물은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참모장 최광이었다. 이들은 1962년 10월 임명된 후 1969년에 숙청될 때까지 4대 군사노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호전적인 대외노선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³²⁾ 특히 민족보위상 김창봉은 인민군창설 제17주년과 제19주년을 기념하여 인민군에 대하여 ‘민족보위상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는 등 군 통제에 있어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³⁾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141쪽.

31)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112.

32)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138쪽.

33) 김창봉은 1965년 내린 명령에서 “현대적 군사기술에 정통하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1967년 명령에서는 “나는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 있는 당신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라고 언급하였다. “민족보위상 명령(1965년 2월 8일),” “민족보위상 명령(1967년 2월 8일),”

군부 엘리트들의 부상과 함께 1966년 당대표자회 이후부터 군사모험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조국의 통일은 단 한 시간도 지체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남조선 해방’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남한에서 혁명운동이 존재함을 단언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항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것을 명령하였다.³⁴⁾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로 남한을 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군에 의한 선제공격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단순한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샤페(Bernd Schaefer)는 김일성이 전쟁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룬 베트남을 뒤따라,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표로 일련의 군사모험주의적 행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한다. 군사모험주의적 행동은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북한의 대남 개입의 구실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³⁶⁾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782~787쪽.

34)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Information on the KWP Delegates' Conference from 5 to 12 October 1966 in Pyongyang and on the 14th Plenary Session of the KWP Central Committee on 12 October 1966. 3 November 1966. PolA AA, MFAA, C 153/75. 이와 관련해 북한 문헌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장성하고 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어가고있습니다. …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 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라고 당시 김일성의 연설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84, 399~400쪽.

35) Embassy of the GDR in the DPRK. Ambassador Horst Brie, to GDR Foreign Ministry, Deputy Foreign Minister Josef Hegen. 12 December 1966. PolA AA, G-A 316.

중국 외교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이 베트남에 전투 부대 파병을 시작한 1965년에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했고 중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 주재 중국 대사 하오더칭(郝德靑)에게 “북한은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군대를 좀 파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³⁷⁾ 그러나 김일성은 전쟁을 시행에 옮기지는 못했으며 당시 김일성과 중국 간에 무력 통일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 중·후반 시기에 비무장지대에서 한·미 양국군을 겨냥한 무력 공격을 강렬히 감행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1954~1992년까지 남한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게릴라는 약 3,693명인데, 이 중 1967~1968년 기간에 무려 743명이 침투하였다.³⁸⁾ 북한은 1966년부터 많은 수의 중무장한 부대를 남한에 침투시켰고, 1967년 1월에는 북한의 해안포가 동해에서 어선들을 호위하던 남한의 PCE-56 해상경비정을 포격하여 침몰시키기도 하였다.³⁹⁾ 1968년 1월 21일에는 특수작전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의 침투조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다. 이어

36)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p.3.

37)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인민)대학 교수가 중국 외교부 기밀해제 문서(No. 106-01480-07)를 분석한 것으로 2013년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의 내용임. 『조선일보』, 2013년 10월 24일.

38) Dick K. Nanto,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Report for Congress(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3), p.4. (<http://fas.org/man/crs/RL30004.pdf>,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39) 제임스 리(이문항), “판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① DMZ는 없다,” 『신동아』, 1997년 12월호(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 검색일: 2014년 8월 15일).

1968년 1월 23일 북한 해군은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the USS Pueblo)호와 승무원들을 동해 공해상에서 나포했다.⁴⁰⁾ 1968년 8월에 북한은 제주 서귀포에 간첩선을 침투시켰고, 1968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사이에는 남한의 울진과 삼척 일대에서 대규모 침투 작전을 감행했다.⁴¹⁾

이와 함께 1966년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혁명도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추구의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부터 1969년에 이르는 기간에 중국의 비방과 공격적인 태도를 참아내며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해나갔다. 그리고 대남 군사모험주의를 통하여 반제국주의 공동투쟁을 강조하며 중국 지도부에게 북·중 간의 갈등보다는 남·북 간의 갈등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즉, 김일성은 군사모험주의를 통해 자신의 반제투쟁, 한반도 통일 의지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북·중 갈등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주의권의 지도자적 위치를 추구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²⁾

40)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는 북한 해안으로부터 약 16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기 위해 경비정 2척, 어뢰정 3척, 전투기(MIG-21) 2대 등을 동원했다(http://www.usspueblo.org/Pueblo_Incident/January_23.html, 검색일: 2015년 4월 20일).

41)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n Special Forces*(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8), pp.86~88.

42)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p.39.

4.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추진

1)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채택

(1)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 경제와 국방건설의 병진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은 5개년 계획을 4년 만에 ‘승리적으로’ 완수한 이후 1961년부터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⁴³⁾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었다.⁴⁴⁾

그런데 최근 공개된 중국 외교부의 비밀문서⁴⁵⁾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 발생 이틀 뒤 조선노동당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한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방력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⁴⁶⁾ 이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1961년부터 시작할

43) 반면, 1959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중공업부장 이종옥은 평양의 외교관들에게 “1959년 경제목표가 크게 과장되었으며, 생산성은 단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발언하였다. “북한 정권은 노동력 투입을 증가하는 방법만으로 겨우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공업화와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은 농촌의 노동력을 빼앗아 갔고 그 결과 1959년 농업 생산량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로의 유입으로 인해 북한 정권은 팽창된 도시주민들에게 식량과 가재도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도시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당시의 경제 실상을 표현하고 있다. Hungarian Embassy to the DPRK, Report, 15 December 1959, KTS, 11. doboz, 24/b, 001710/1960.

4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 제9호(1961), 38쪽.

45)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Party Central Standing Committee Meeting,” May 21, 1961, No. 106-0051-06, PRCFMA.

46) 신종대,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33권 1호(2010), 95~98쪽.

예정이었던 7개년 계획의 선포를 1963년으로 2년간 연기하고, 1960년의 완충기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대신 국방력과 방어요새 강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실제로 7개년 계획의 시작은 연기되지 않았으나, 위 문서의 내용은 1961년 이후부터 북한이 경제 건설과 국방력 강화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60년대 초반에 북한과 소련의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소련의 대북 경제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북한과 소련의 무역액은 정체 상태에 있었으며, 1964년의 경우 무역액은 1963년에 비해 감소되기까지 하였다.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차관을 획득할 수도 없었다.⁴⁷⁾ 이처럼 남한에서 군사 정권의 등장과 소련의 대북 원조 중단에 따라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도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북한은 제4기 5차 전원회의의 개최 배경에 대해, ‘(7개년계획) 수행에 들어선 첫 2년 동안에 공업과 농업 생산이 높은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던 때에,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북한은 쿠바 위기로 인한 국제 정세의 긴장, 바보크만 사건을 통한 베트남전의 확산, 한국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화,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의 결탁 등

47) 나탈리아 바자노바(Natalia Bazhanova), 『기묘에 선 북한 경제』(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27쪽.

4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539~540쪽.

으로 인해 아시아와 전반적 지역에서 전쟁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에 따라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 방침’을 제시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기술한다.⁴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구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와 ‘1962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3년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라는 두 가지였다. 회의 결정에서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중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들을 더욱 정비보강하면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 발전에 주력할 것’을 제기하였다.⁵⁰⁾

그러면,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의 실제 추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먼저 1962년부터 시작된 병진노선은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시키는 것과 함께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외교문서에 의하면 1962년 12월 전원회의는 1963년을 ‘또 하나의 완충기’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이미 1962년 6월에 입안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김일성은 동독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정부는 산업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196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1963년 공업성장률은 최초 목표 18%에서 11%로 하향조정하였다.⁵¹⁾ 살롱타이는 이러한 경제 목

49) 위의 책, 540쪽.

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년감 1963』, 157~161쪽.

51) Hungarian Embassy to the DPRK, Report, August 1962, KTS, 11. doboz, 24/b, 002304/1/1962; Hungarian Embassy to the DPRK, Report, 1 October 1962, KTS, 5. doboz, 5/bc, 007976/1962; Hungarian Embassy to the DPRK, Report, 25

표의 축소는 1962년에 경험한 경제적 실패와 함께 북한 정권의 군사비 증액 결정에 기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⁵²⁾

그런데 이와 함께 1962년에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격적인 군사력 건설보다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무장’에 더 관심을 기울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김일성은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3년 2월 8일 인민군 정치부 간부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한 연설에서, 군사력 증강에 관한 내용보다는 ‘계급적 정치교양 사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지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일부 청년들속에서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 일하기도 싫어하고 군대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저 부화방탕하게 놀기만 좋아하는 나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시의 세태를 지적하고 있다.⁵³⁾ 김일성은 또한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전쟁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지는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적들이 감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를 해놓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도 “적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도 도리어 우리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자라고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져서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 남조선혁명을 지원할 준비를 잘하

January 1964, KTS, 11. doboz, 24/b, 001400/1/1964.

52) Balá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p.195.

53)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 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465, 469쪽.

기 위한 것이며 적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은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채택은 대외 안보위협에 심화에 대응한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였지만, 당시 사회주의권과 북한에 유포되던 수정주의 사조의 확산을 차단하고 김일성 유일권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 조치라는 성격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즉, 실제적인 전쟁위협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방비를 갑작스럽게 증가시킬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록 김일성에 반대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가졌었던 박금철도 5·16 군사정변 이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김일성의 입장은 당시 군사문제에 있어서 전투훈련과 전투 준비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인민경제건설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군대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⁶⁾ 즉, 1962

54) 위의 글, 520쪽.

55) 박금철은 평양 주재 소련대사 모스크프스키(Moskovsky)에게 “남한의 지도자가 군사정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북침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남한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우며, 그들이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대비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박금철은 또한 “평양은 더 이상 남한에서 지식인과 학생들의 봉기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박정희가 남한의 경제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정권과 평화적 통일을 협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ungarian Embassy to the DPRK, Report, 15 February 1963, KTS, 6. doboz, 5/d, 0011/RT/1963.

56) 김일성은 “우리는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면서 동시에 국방건설에 막대한 자재와 역량을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군대를 더 늘리면 인민경제건설에 지장이 있”어 “지금 군대를 더 늘일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514~515쪽.

년 직후에는 국방력 강화가 추진되었으나 군사비 투자가 후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경제와 국방의 병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의도는 북한의 경제정책 실행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북한 지도부는 당초 제1차 7개년 계획 기간(1961~1967년) 중에는 경공업 부문에 보다 많은 힘을 쏟으려 했다.⁵⁷⁾ 제1차 7개년 계획의 투자 기본 방향은 첫 3년(1961~1963년) 동안에는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에 필요한 기계공업, 화학공업, 수산업, 농촌경리에 중점을 두며, 다음 4년(1964~1967년)간에는 공업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료 동력 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운수공업 등에 중점을 두도록 예견되었다.⁵⁸⁾

<표 1>에서 나타나듯이 7개년 계획 기간의 최초 2년은 이전보다 많은 자금이 경공업 부문에 돌려졌다. 공업 부문 투자비 총액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까지 19% 이하였으나, 1961년에 30.4%로 급증한다. 이어 1962년에는 36.3%, 1963년 31.8%로 높은 비중을 이어간다. 그러나 다시 1964년에 26%로 줄었다가, 1965년에는 12%로 급감한다. 1962년 12월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3년간에는 국방공업과 연관이 크지 않은 경공업 부문에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 지도부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 등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경공업·농업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7개년 계획이 시작된 직후의 중공업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

57)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18쪽.

58) 김태근, “기본 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13호(1962), 33쪽.

<표 1> 북한 공업 부문의 국가기본건설 투자 (단위: 100만 원, %)

연도	구분	공업 부문 투자		중공업 투자		경공업 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60		260	100.0	209	80.6	51	19.4
1961		345	100.0	240	69.6	105	30.4
1962		363	100.0	231	63.7	132	36.3
1963			100.0		68.2		31.8
1964			100.0		73.8		26.2
1965		480	100.0	419	87.3	61	12.7
1966			100.0		84.7		15.3
1967		660	100.0	554	84.0	106	16.0
1969		1,062	100.0	892	84.0	170	16.0
1970		1,113	100.0	988	88.8	125	11.2

자료: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18쪽.

나라 ‘농업과 경공업을 위한 중공업’이었던 것이다.⁵⁹⁾

그런데 김일성은 1965년 신년사에서 “최근 2~3년 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예견하였던 것보다 일정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공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7개년 계획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⁶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62년부터 국방력 강화노선이 추진되었으나,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중공업 분야에 과도한 축적으로 경공업, 농업 분야의 희생에 대한 피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경공

59)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240~241쪽.

60) 『로동신문』, 1965년 1월 1일.

업, 농업 분야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60~1964년은 군사비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경제건설에도 여전히 힘을 쏟은 경제·국방건설의 병진이 실제적으로 추진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 국방력 건설의 본격 추진

1960년대 중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의 확대,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또한 경제 역시 계속 침체되어 1966년에는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1966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 김일성은 미국 등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전의 ‘계단식 전쟁확대’ 정책, 대만의 강점, 남한의 군사기지화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결탁한 《동북아군사동맹》 조직 등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김일성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어 북한을 침략할 준비를 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경계했다.⁶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북한은 1962년보다 1966년에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었으며”, “우리나라(북한)와 아시아 전반적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⁶²⁾

당대표자회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재차 강조되고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갈 것이 결정되면서 전사회적 동원과 군대

61) 이태섭, 『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 변화』(서울: 선인, 2009), 200, 323쪽.

62)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년 10월 5일),” 356쪽.

의 현대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당대표사회 직후 북한 문헌은 “경제력을 부단히 장성시켜야만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더욱 공고히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더큰 고무를 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 힘있게 지원할수 있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이 이바지하고 세계혁명을 더 강력히 지지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³⁾

1966년 이후 급격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북한의 군사비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군사비 추이를 나타낸 <표 2>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는 타 시기에 비해 북한의 예산 대비 군사비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1957~1960년 기간의 평균 추정 군사비는 예산의 19~22% 임에 비해, 1961~1970년 기간의 평균 국방비는 예산의 25.4%로 증가했다. 특히 1967~1969년 사이에는 예산의 30% 이상이 군사비에 투자되고 있다. 북한 군사비가 1967년부터 국가예산의 3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전 시대에는 군사비가 은닉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의 군사비 은닉분이 존재하는 가운데 1962년부터 군사비가 단계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북한이 공식 발표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민족보위비는 매년 약 6,000만(북한) 원 전후로 총예산지출의 2.1~3.7% 수준이었다.⁶⁴⁾ 그런데 최초 예산지

63) 량환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 『천리마』, 제12호(1966), 5쪽.
 64) 이 수치는 민족보위성의 직접 지출, 즉 장병의 급료와 부대관리비 등 기본병력 유지비 정도만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인민군 병사와 장교들의 식량주택 및 기타 복지 비용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이 1966년까지 ‘인민경제를 위한 지출’과 ‘사회문화시책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207~208쪽.

<표 2> 북한의 군사비 변화 추이(1953~1973)

연도	군사비/예산(%)			군사비 (10억 원)
	북한 발표	은닉 부분 ¹	합계	
1953	15.17	15.4	30.6	.152
1959	3.7	15.9	19.6	.318
1960	3.1	15.9	19.0	.374
1964	7.5	"	20.82	.712
1965	9.8	"	23.12	.804
1967	30.4	없음	30.4	1.200
1968	32.4	"	32.4	1.559
1969	31.0	"	31.0	1.565
1970	29.2	"	29.2	1.484
1972	17.0	8.5	17.0~22.5	1.256~1.884
1973	15.4	7.7	15.4~23.1	1.289~1.921

주 1: 북한이 사후 인정한 1960년의 은닉된 군비지출. 1972년 이후는 공식 국방비의 50%를 적용한 추정치임.

자료: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220쪽.

출의 3.1%로 발표되었던 1960년의 군사비가 후일 북한 당국에 예산 지출의 19%로 확인된다.⁶⁵⁾

함택영은 1960년 실제 군사비가 19%였다는 북한의 보고에 의거하여 소급한 결과, 1961~1966년 기간에는 약 37억 원, 총예산 지출의

65) 1970년 11월 9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1부수상 김일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966년 10월에 열렸던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의에서 ...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에 따라 『당』은 인민경제 발전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 국방건설을 더욱 다그치도록 하였습니다. 1960년에 국방부문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9%가 돌려졌다면 당대표자회가 있는 이후인 1967~1969년 동안에는 국가예산지출의 31.3%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돌려졌으며 지난 9년 동안에 거의 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건설에 지출되었습니다.” 『로동신문』, 1970년 11월 10일.

19.8% 정도를 실제 북한의 군사비로 추산한다.⁶⁶⁾ 또한 이태섭은 1961년부터 1969년까지 9년 동안 “거의 80억 원”이 군사비에 지출되었다는 발표에 근거하여, 1961~1966년 동안 국가 예산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7.8%로 추산한다. 그리고 1960년대 북한의 국가 예산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1~1962년에는 17.8%보다 작고, 1963~1966년에는 17.8%보다 클 것이며, 또 1963~1964년보다 1965~1966년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군사비 변화 추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1962년보다 1966년에 안보위험을 더 크게 느꼈던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 이후 군사력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군부 세력이 당중앙위원회에 대거 진출하며 군사모험주의를 시도했던 과정과도 시기가 일치한다. 북한의 대외 정세 역시 1961년 중국과 소련과의 상호원조조약 체결에 따른 동맹의 안보 지원 강화, 이후 중소 분쟁 심화에 따른 국방의 자위노선 추구, 그리고 1966년 이후 중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로까지의 발전 등은 북한이 점증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즉 1960년대 초반 7개년 계획과 함께 경제건설을 중점 추진하던 시기에는 높지 않았던 군사비 규모가 1962년과 1966년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점차 증액된 것이다. 1960년대 북한의 군사비는 지속적인 은폐가 아닌 점차적인 증액의 과정을 거쳐 1960년대 말에 마침내 그 절정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6)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208~209쪽.

6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304쪽.

2)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반대와 숙청

김일성이 추진했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북한 엘리트 전체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1967년에 들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와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노선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김일성파의 정책에 대한 주요 반대자는 갑산파인 박금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효순(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남총책)이었다.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쟁점은 유일사상의 체계화 문제, 대남 전략의 전환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의 문제 등이었으며, 박금철과 이효순은 이 회의에서 숙청되었다.⁶⁸⁾

북한 문헌은 박금철, 이효순 등의 갑산파가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높은 속도, 천리마운동 등을 비판하고,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일려고 획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⁶⁹⁾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실행 방안을 놓고 김창봉, 최현,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 군부 지도자들은 중공업발전이 사회주의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서 중요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박용국 등 온건파는 7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주장했다.⁷⁰⁾

6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06쪽.

69) 김정일, “반당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7년 6월 15일),”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4~236쪽.

70)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 사회』(서울: 박영사, 1999),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 그리고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의 이용에 관한 문제’였다. 갑산파 인사들은 ‘가치법칙연구그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도 상품이기에 때문에 상품 생산과 가치법칙을 제한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⁷¹⁾ 또한 김일성의 높은 성장 속도 추구에 반대하며, 경제성장 속도를 늦출 것을 주장하였다. 즉, 김일성 이 속도를 강조하였다면, 갑산파는 균형을 강조했던 셈이다.⁷²⁾

43쪽.

- 71) 북한 문헌에 의하면, 갑산파 인사들은 ‘가치법칙연구그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도 상품이기에 때문에 상품 생산과 가치법칙을 제한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황해제철소와 그밖의 몇 개 공장들에서는 수정주의에 물젖은 어느 한 일군의 지시 밑에 《가화폐 제도》가 도입되고 있었다. 가화폐란 문자 그대로 가짜 돈이며 그 제도란 날마다 노동자들에게 그날 계획 수행에 따르는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가서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였다.” 북한 문헌은 《가화폐 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돈에 얽어매놓는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이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을 반대하고 수정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불순한 사람들이 꾸며낸 《창안품》”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83쪽.
- 72) 김일성은 1968년 4월에 행한 연설에서 “지난 기간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성장 속도를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잘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지도일군들에게 수정주의적경제리론이 일정하게 침습한것과 관련되어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갑산파의 주장은 “청년들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화》니 뭐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어 일을 잘하지 않은데로부터 경제장성률이 떨어지는것을 합리화하려고 만들어낸 우경기회주의적리론”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상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상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89쪽.

이 같은 경제발전전략과 연관하여 국방, 대외정책에서도 갑산파는 김일성 세력과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갑산파 중심의 온건파는 ‘사회주의로의 평화로운 길’을 계속하는 정책의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군부 중심의 강경파들은 또한 경제원조와 기술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 보다는 소련과 밀접한 동맹 확립을 주장했으며 북한 전 지역을 군사 요새화할 것을 촉구했다.⁷³⁾

갑산파를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 경제 이론’은 늦어도 1965년부터 유포되었으며, 특히 1966~1967년 경제계획 수립에서는 균형론이 속도론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 5월 갑산파의 숙청 이후 속도론이 다시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고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 관철을 위한 전국민적 동원이 추진되었다.⁷⁴⁾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온건한 대외관계를 추구한 갑산파의 숙청 이후 북한에서는 ‘속도 전식 경제성장’ 같은 경제 분야의 군사주의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후복구를 마치고 1961년 사회주의 공업국 건설을 목표로 제1차 7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소 갈등의 심화와 북·소 관계의 악화,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 발생과 함께 1962년부터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을 천명하는 등 군사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한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쿠바

73)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104~105쪽.

74) 이태섭, 『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 변화』, 208쪽.

사태 등 안보위협이 심화된 1966년에는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이러한 국방력 강화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참여 및 지위 상승과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한 자리 수에 불과했던 주석단내 군인의 비율은 1968~1970년 3년간 30~40%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경제관료들의 탈락과 함께 빨치산계 군부 인사들의 노동당 정치위원회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항일 빨치산 세력이 군부 장악과 함께 당의 정책결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함을 의미한다.

1960년대의 북한의 안보 문제는 경제발전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과 군부 인사들의 정책 결정 영향력 확대는 군사력 건설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이 정책화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군사주의 확산의 주요한 지표인 예산 대비 군사비 비중은 대외 안보위협 인식, 군부 인사의 정치 참여, 김일성의 혁명 완수 의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196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967년에 예산의 30%를 군사비에 투입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또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은 속도전식 경제성장방식을 추구하였고, 그 구체적 실행 방식으로 대중동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중동원운동들은 대개 돌격대식, 군대식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는 ‘항일유격대의 사상과 생활방식’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 정권은 대외 안보위협과 한반도 혁명 완수 책무를 강조하며, 사회에 군대식 규범과 조직 및 규율을 침투시키고 주민들이 수령과 당의 명령을 자발적이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끌어나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는 남한의 5·16 군사정변과 함께 강화되기 시작하여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채택, 1966년 당대표자회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주의를 확산시킨 배경 역시 1960년대 초기에는 중소 분쟁, 쿠바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과 함께 반수정주의 투쟁 및 김일성의 권력 유지라는 내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1966년 이후에는 북·중 관계의 악화 차단, 반제전선에서 주도적 위치 점유, 한반도 혁명 원수 등 대외적 요인이 더 강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주의는 더욱 공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주지할 점은 북한의 군사주의가 아무런 반대 없이 맹목적으로 확산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군사주의 확산 과정에서 갑산파를 위시한 세력들은 ‘전쟁가피론’, ‘평화공존론’, ‘경공업과 인민생활우선론’을 주장하며, 김일성파의 ‘군사력 강화론’에 반대하였다. 김일성 세력 역시 이러한 반대 세력을 의식해 일방적인 군비증강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일정 부분 ‘경제와 국방 건설을 병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가 군사중시노선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고, 치열한 노선 투쟁과 대안 제시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969년에 김창봉 등 군부 관료주의자들이 다시 숙청되고 1970년대에는 국제적인 테탕트와 함께 군사주의도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북한에서 군대의 정치 참여, 군사기구의 제도화, 군사력 증강 등 군사주의가 형성, 확산된 과정은 최근 제기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성격과 연원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과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시대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1960년대와 2000년대 북한 군사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양 시기를 관통하는 교훈은 안보 환경이 취약한 약소국이 자립적인 경제와 자주적인 국방을 건설한다는 것은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항상 ‘한 손에는 무기와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드는’ 동원과 희생에 허덕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압과 동의의 기제로 군사주의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접수: 7월 3일 / 수정: 8월 2일 / 채택: 8월 4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고정웅·리준항,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3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2) 논문

장효진,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 『근로자』, 제20호(1962).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 제9호(1961).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근로자』, 제18호(1962).

_____,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 이상간 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_____,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상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상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4월 16

- 일), 『김일성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 (1969년 10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반당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태근, “기본 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13호(1962).
- 랑환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 『천리마』, 제12호(1966).
- 신근필,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진,” 『근로자』, 제11호(1966).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곽승지, “안보전략,” 『북한의 국가전략』(파주: 한울, 2003).
- 김달중, “동구의 대소 관계,” 『동구의 정치 경제』(서울: 법문사, 1992).
-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서울: 박영사, 1999).
-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 미찌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파주: 한올아카데미, 2014).
- 바자노바, 나탈리아(Natalia Bazhanova), 『기रो에 선 북한 경제』, 양준용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1992).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파주: 한울, 2010).
-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7).
-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_____,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_____,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세종연구소, 2011).

정진위, 『북방3각관계: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법문사, 1985).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2) 논문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신종대,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33권 1호(2010).

전재성, “세계적 차원에서 데탕트의 기원과 전개,”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3) 기타 자료

“인민군창건 1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최광 총참모장 보고(1966년 2월 8일),” 『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3. 국외 자료

Bermudez Jr., Joseph S. *North Korean Special Forces*(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8).

- Klare, Michael T., "Militarism: The Issues Today," Asbjørn Eide and Marek Thee(eds.),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New York: ST. Martin's Press, 1980).
- Koo, Bon-Hak,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 Langer, Paul F.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dam Bromke and Teresa Rakowska-Harmstone(eds.), *The Communist States in Disarray 1965~197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2).
- Nanto, Dick K.,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Report for Congress(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3).
- Schaefer, Bernd,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ashington, D.C. October 2004).
- Szalontai, Balázs,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ilitarism in 1960's

Kim, Sung-ju(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ince 1962,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strong military tendencies by proclaiming the policy of “self-defense as a form of national defense” and by pushing forward “Four Military Policy Lines,” in the middle of a deepened Sino-Russian conflict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and the outbreak of May 16 Coup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in 1966 when a security menace was at high risk by America’s war escalation with Vietnam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North Korea strengthened the Parallel Policy of economy and defense and increased military expenses drastically.

This reinforcement policy of military force has been connected to the army’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ism. In addition, the increased influence of policy determination and strengthened military force have brought about aggressive military adventurism, accompanied by Kim Il Sung’s mission to complete the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velopment of militarism has led the change i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building of military forces had special priority over national policy.

All these aspects have been established as a policy under the name of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ce build-ups.” North Korea’s militarism of the 1960s reached its peak in all sectors of society, combined between awareness of security menaces and Kim Il Sung’s will to complete the revolution.

Keywords: militarism,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ce build-ups(Byoungjin Line),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military Elites, military adventurism